

전체 주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보배와 보석”

메시지 3번과 4번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골 1:12-13, 눅 11:33-36, 욥 42:5-6, 사 2:5, 4:4, 5:20, 6:1-8, 시 139:23-24

- I. 으름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골 1:12).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은 물질적인 땅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갈 3:14, 딤후 4:22, 롬 8:16).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적이고 중대한 요점이다(골 2:6-7, 빌 1:19).
- II.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낚는 방면에서 그분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 골 1:12-13, 출 3:8, 벰전 2:9, 사 2:5.
- A. 하나님은 빛이시고(요일 1:5),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시 119:105, 130), 그리스도는 빛이시고(요 8:12, 9:5),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고(요 1:4), 믿는 이들은 빛이고(마 5:14, 빌 2:15),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이다(계 1:20, 시 73:16-17).
  - B. 진리는 빛의 비춤이고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출 33:14, 고후 2:10.
  - C.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돕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분은 돕는 해로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하신다 — 눅 1:78-79.
  - D.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의 해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누릴 때 어둠을 쫓아내는 면에서 생명 안에 성장할 수 있고, 불의를 없애는 면에서 생명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 말 4:2, 시 84:11.
  - E.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속박에서 해방해 주는 큰 빛이시다 — 사 9:1-5, 마 4:12-16, 요 1:4-5, 벰전 2:9, 골 1:12-13, 시 119:105, 107:10-22.
  - F.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비추시는 것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분의 더 많은 목양 곧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 편 제목, 80:1, 3, 7, 15-19.
  - G.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빛 비춤에 상응한다.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을 산출할 수 있고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이 증가할 수 있다 — 고후 4:6, 창 1:1-3, 14, 시 36:9, 엡 5:13.
  - H.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오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어려움과 타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것이고 심지어 더욱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단지 인간적인 행위에서 온 것이라면 그 행위는 본성이 바뀌거나 제거될 것이다 — 고후 1:8-9, 12:7-9.
  - I.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한다 —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 J. 빛이 우리 속에 비출 때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내적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요 8:12, 32, 36, 롬 8:6, 엡 4:18-19, 5:8, 고후 2:13, 말 2:15-16.

- K.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비추심은 옛 창조물을 산출하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심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비추심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산출한다 — 창 1:3, 16, 고후 4:6, 엡 5:8-9, 갈 5:22-23.
- L. 하나님의 내적 빛남, 곧 하나님의 기묘한 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신다(벧전 2:9, 고후 4:6).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 네 마음은 두근거리며 기쁨에 벅차리니” (사 60:5 상).
- M.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님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다 — 출 34:29-35, 마 5:14-16, 빌 2:14-16 상, 엡 5:8-9.
- N.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 힘 있게 돌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 사 5:31.
- O.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 잠 4:18.
- P. 시편 22 편의 표제는 ‘새벽 암사슴’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곡조를 가리킬 것이다. 여기에서 ‘새벽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눅 24:1). 암사슴은 뛰어다니고 뛰어오르는 사슴을 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뛰어다니시는 분이시다(아 2:8-9).
- Q.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 마 13:43.

### III.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 — 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사 5:20, 비교 요 3:19, 욥 3, 살후 2:10-11, 잠 23:23, 요 5:44.

- A.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빛 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 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 B.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 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 C.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 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 D.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 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비교 출 33:11, 14.
- E.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속에 살아야 한다 — 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 IV.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빛 비춤을 주셨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욥 42:5-6.

- A.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얻었으며, 자신을 혐오했다 — 욥 38:1-3, 42:1-6.
- B.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고후 3:16, 18, 4:6-7).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혐오하고 부인할 것이다(욥 42:5-6, 엡 5:13, 눅 5:8, 마 16:24, 눅 9:23, 14:26).
- C.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이 필요하다. 아침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간이다 — 마 5:8, 시 27:4, 8, 고후 3:18.

- D. 욕의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욕 11:12 각주 1 을 보십시오)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 근거한다 — 시 27:8, 105:4, 빌 3:8, 마 25:3-4, 9, 잠 23:23, 계 3:18, 고후 3:18, 4:17, 벰전 2:7, 단 5:27, 9:23, 10:11, 19.
- E.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얻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점점 더 누림으로, 결국 그들의 누림이 가장 최고도에 도달하여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 마 5:3, 시 43:4, 73:25-26, 빌 3:8-9, 계 21:2.
- F.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에 관해 욕기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 되는, 신약 전체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 욕 10:13, 엠 3:9.
- V. 이사야는 낙심해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으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사 6:1-8, 비교 계 22:1, 대하 26:4-5, 16-22.
- A.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 사 5:20, 6:1-4, 계 22:1.
- B. 그리스도만이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대상(對象)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 히 12:1-2 상.
- C. 이사야는 제단에서 가져온 타고 있는 숯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스랍이 이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효능을 상징하는데, 이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불태우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불타는 영에 의해 적용된다 — 사 6:6 하-7 상, 4:4, 비교 눅 12:49, 계 4:5.
- D. 하나님을 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 사 6:6-8, 요일 1:7-9.
- E. 이사야는 정결하게 된 후에 삼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
1.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 ‘내가’와 ‘우리를’이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분께서 삼일 하나님이심을 가리킨다 — 사 6:8 상, 골 2:9.
  2.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로 이끄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적셔지고, 그분의 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사 6:8 하, 행 13:47, 사 49:6, 빌 1:21 상, 비교 창 3:24, 고전 1:30.
- VI.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시 139:23-24.
- A.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살피심과 시험하심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든 해로운 길(어떤 것이든 우상숭배의 길이나 고통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B.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누가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